# ‘K-속강’ 땅설법 보존 ‘청신호’

**삼척 안정사 전승 땅설법**
**‘전통예술 복원사업’ 선정**
**동아시아 유일 俗講 평가**
**오는 10월 삼척서 세미나**
**다여 스님 1인 전승 구조**
**“무형문화재 지정 시급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땅설법 ‘성주대재 신중신 일대기’의 한 장면. 다여 스님에게 의해 1인 전승되고 있는 땅설법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속강(俗講) 땅설법의 보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2021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에 (사)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이 제안한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의 속강 문화 복원 연구’를 선정했다.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은 현재 전승 위기를 맞은 전통예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 또는 시연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사 땅설법 이외에도 동래 삼현육각 복원 연주, 서도명창 박월정의 판소리 춘향가 시연 등 8개 종목이 선정됐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동아시아 유일의 속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학계에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강(講)과 창(唱)으로 전달하면서, 때론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 역할극 등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자들의 교리학습과 아울러 일반인들 대상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땅설법 전승자이다. 다여 스님은 이북 지역서 활동했던 강통(講統, 땅설법 법맥 대표) 무명 스님(1910~1988)에게 땅설법을 사사했으며,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패와 전법게를 받았다.

이 같은 1인 전승 상황은 땅설법 보존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땅설법을 연행하는 속강승(俗講僧)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다. 땅설법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선정은 땅설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민속연희를 전공한 윤동환 전북대 교수,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형근 동아대 교수, 신희라 박사(전북대)가 각각 전통공연 측면에서 땅설법의 가치를 규명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삼척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근 동아대 교수(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는 “안정사 땅설법은 종교의례를 넘어서서 전통예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되는 무형유산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유일한 속강이다”며 “이 같은 소중한 무형 문화의 국가·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땅설법의 유일한 전승자인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은 “지역 사찰에서 소박하게 봉행하던 땅설법이 이토록 중요한 무형문화인지 몰랐다. 지역 사람도 줄고 고령화되면서 전승이 어려워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이번 선정으로 보존에 더욱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땅설법이 불자와 일반대중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 법장사 고서들 서울시 문화재 지정

**서울시 10일 지정 고시**

서울 중랑구 법장사(주지 퇴휴)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들이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 잇달아 지정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6월 10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를 통해 법장사 소장 고서 4점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1점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황명이학명신언행록〉은 명나라 학자인 양렴의 저술로 16세기 조선에 유입된 책으로 16세기 조선 유학 도통(道統)의 정립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함께 지정된 〈불조삼경〉은 원나라 고승 몽산덕이 선사가 〈불설42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을 합철한 것으로 몽산덕이는 이를 〈불조삼경〉이라고 불렀다. 이 책은 16세기 금산 신안사에서 간행된 법장사 소장본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법장사 소장 〈불조삼경〉

또한 법장사 소장 〈배자예부운략〉과 〈장세호 유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경전과 관련된 21점의 판화가 수록돼 있으며 1534년 전남 광주 무등산 도솔암에서 목판으로 간행됐다. 해당 판본이 온전한 상태로 보전된 것은 법장사 소장본이 최초다. 신성민 기자

# 백제 불교문화, 새롭게 경험하세요

**정림사지박물관, 실감형 ICT 체험 콘텐츠 구축**

세계유산 정림사지에 자리한 정림사지박물관이 최첨단 기술이 활용된 체험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정림사지박물관에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몰입도 높은 실감형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재개관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개관한 정림사지박물관은 찬란했던 백제불교의 역사와 문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던 역할에서 진일보해 문화유산 활용 트랜드를 지향하는 첨단 박물관으로 변모하게 됐다.

부여 정림사지는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오층석탑과 함께 백제 사비시대 불교문화의 핵심유적으로서 동아시아 불교문화와 건축기술의 중국, 백제, 일본 등 국가 간 교류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구성된 정림사지박물관은 제1전시실은 유물전시 공간에서 조명 쇼를 연출하며 AR을 통한 유물의 자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피니티 룸과 AR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 정림사 복원모형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석탑모형에 정림사지오층석탑의 축조과정과 비례미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제2전시실은 백제 사비시대 6대왕의 대화를 보여주는 ‘불교의 나라 백제’와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백제불교의 유래와 전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360도 화면에서 백제문화의 터전 부여 10경과 영원을 꿈꾸는 백제의 이야기를 상영할 ‘사비연화 360’ 영상관은 방문객들에게 인상적인 영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정림사지박물관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형 전시공간을 구성했다”며 “코로나19가 극복되는 시기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정림사지박물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ICT 체험 콘텐츠.

# ‘唐 강거사 비문’ 최초 공개된다

**국립중앙博 ‘투루판 한문자료’ 특별전서**

**唐 귀순한 후 대장경 필사**
**해당 경전 목록 비문 새겨**

투루판 중심지인 고창고성(高昌故城)에서 발견된 대장경 목록 비문과 시신깔개가 부착된 당나라 관문서들이 국내 박물관서 최초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6월 14일부터 세계문화관 중앙아시아실에서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 실크로드 경계의 삶’을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대장경 목록 비문 등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발간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고문자- 투루판(吐魯番) 지역의 한문자료〉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 성과를 대중에게 특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6건 19점의 전시품은 1912년에 일본 오타니(大谷) 탐험대원 요시카와 고이치로(吉川小一郎, 1885~1978)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북동부의 투루판 지역에서 수집한 것으로, 투루판의 국씨고창국(麴氏高昌國) 시기인 6세기 말부터 당(唐) 왕조 지배기인 7세기 말에 작성됐다.

불교 관련 유물로는 고창고성에서 발견된 ‘강거사의 대장경 조성 업적을 새긴 비편(武周 康居士 寫經 功德記 殘碑)’이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비문에 따르면 강거사는 강국(康國, 현 사마르칸트) 출신의 소그드인(粟特人) 지도자였으나, 7세기 중반에 당나라로 귀순해 투루판에 터전을 잡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말년에 공덕을 쌓기 위해 대장경을 필사하는 사업을 벌이고 해당 경전 목록을 새긴 이 비를 세웠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공개되는 ‘강거사의 대장경 조성 업적을 새긴 비석’

이번 조사에서 비에 새겨진 경전 목록 대부분이 동시기에 유통된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제8권에 수록된 장안(長安) 서명사(西明寺)의 대장경 목록과 완벽히 일치하며, 나머지는 〈대주간정중경목록(大周刊定衆經目錄)〉에서 선별한 최신 번역 경전임을 확인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두 목록에 근거해 복원한 비의 앞뒷면에는 당시의 818부 4039권 이상의 경전명이 새겨져 있었고, 비의 몸돌 높이가 최대 2.8m에 달하는 거대한 비였음이 밝혀졌다”면서 “이 비는 6~7세기 투루판 지역의 비석 가운데 실물로 현존하는 유일한 예로, 이 비가 가리키는 강거사 대장경의 실제 경전들을 향후 투루판 지역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전은 국내외 관련 연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실크로드 경계에서 한인(漢人)과 서역인이 공존했던 삶의 흔적을 살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석정수 스님
010-2766-7677

뻐꾹새 우는 북한산성 약사선원(명상센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